

#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 고찰\*

## - 사실의 변용과 프루스트적 글쓰기 -

강정심\*\*  
kjsim7004@naver.com

김난희\*\*\*  
knh2765@jejun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프루스트적 글쓰기 |
| 2. 고마코의 변용으로서의 시계코 | 5. 마치며       |
| 3. '공포'와 '우울'의 실체  |              |

主題語: 도손(Toson), 버찌 익을 무렵(When the Cherries Ripe), 변용(transformation), 공포와 우울(fear and gloominess), 프루스트적 글쓰기(writing of Proust)

## 1. 들어가기

『버찌가 익을 무렵(櫻の實の熟する時)』(1919)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이후 도손)이 메이지학원에 재학 중(19세)인 1890년 초여름부터 1893년(22세) 이른 봄 까지를 그려낸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교양소설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성장이 주된 내용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이 나오게 된 계기는 1912년 『문장세계(文章世界)』의 편집장인 마에다 아키라(前田 暁)로부터 젊은 독자를 위한 소설을 써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

도손은 1913년 1월과 2월에 『버찌가 익을 무렵』의 초고에 해당하는 『버찌』 「1장」과 「2장」을 『문장세계』에 발표한다. 그러나 그 무렵 조카 고마코와의 관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일명 ‘신생사건’<sup>1)</sup>으로 말해지는 근친간의 연애로 인한 임신 사건이다. 이 문제로 도손은

\* 이 논문은 2018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과 박사과정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도손과 조카 고마코와의 불륜관계를 말한다. 1910년 부인 후유코(冬子)가 사망하자, 도손은 남겨진 자식들 4남매 중 두 아이는 직접 돌보고 두 아이는 지인에게 맡긴다. 당시 상경해 있던 둘째형(広助)의 큰딸(ハス)과 여학교를 졸업한 둘째딸 고마코가 함께 기거하며 삼촌인 도손의 가사 일을 돕게 된다.

망연자실했으며 고마코의 부친인 형의 노여움을 사야만 했다. 그래서 『버찌』의 원고를 이어나 갈 수가 없었다. 도손은 결국 프랑스 파리로 도피성 외유를 하게 되고 『버찌』 집필 중단을 결심, 4월에 『『버찌』 독자들에게 『桜の実』의 読者(こ)를 실어 휴재(休載)를 알렸다. 파리 도착 후 『버찌』는 『버찌가 익을 무렵』으로 제목이 수정되어 1913년 3월부터 『문장세계』에 연재된다. 단행본은 1919년 1월 『신생』 제1권과 동시에 『춘양당(春陽堂)』에서 간행된다.

『버찌가 익을 무렵』의 주인공 이름은 스테키치(捨吉)로 『봄(春)』(1908) 『신생(新生)』(1919)의 주인공 스테키치와 이름이 같다. 작가는 주인공의 이름을 나중에 통일시킴으로써 이 세 작품이 하나의 연작이 되도록 의도했다. 이 세 작품에는 도손의 전체상을 조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다. 본고는 『버찌가 익을 무렵』 한 편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신생』과 겹쳐지는 부분은 『신생』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도손의 메이지학원 학창 시절을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담화 「내 인생의 겨울(吾が生涯の冬)」(1907)과 수필 「메이지학원의 학창(明治学院の学窓)」(1909)이 있다. 이 글들은 도손의 소년시절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버찌가 익을 무렵』의 내용처럼 위기감은 보이지 않는다. 소년기에서 청년기에 걸친 시간을 그려낸 『버찌가 익을 무렵』은 단순한 과거를 재현한 평면적인 서술이 아니라 집필 당시의 작가의 복잡 미묘한 심경이 들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즐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성장과정으로만 파악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주인공의 심층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본고는 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성장’을 중요한 모티브로 삼고 있지만 행간의 여운이 많은 작품이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함께 도손 개인이 겪은 번민을 간과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에 관한 한국의 선행연구는 ‘성장’의 중심에 내재한 성(性)의 문제를 둘러싼 내면심리를 중심으로 고찰한 임태균의 논문<sup>2)</sup>과 모성과 어머니에 대한 변화된 의식세계를 규명한 천선미의 논문<sup>3)</sup>이 있다. 일본의 선행연구로는 나가시마 구니히코(中島国彦)의 『『버찌가 익을 무렵』의 구조—작품의 저변을 흐르는 것—』<sup>4)</sup>이 있다. 나가시마의 논문은 『버

1912년 큰 조카 히사가 결혼을 하게 되자 고마코 혼자서 가사 일을 계속 돕게 되면서 근친상간 관계에 이른다.

- 2) 임태균(2003) 『『버찌가 익을 무렵』에 나타난 성장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19, pp.187-203  
임태균(2006)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론 -‘동정’의 고녀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67, pp.241-252
- 3) 천선미(2017)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론 -‘모성과 어머니’에 대한 인식의 성장-」 『일본문화연구』 62, pp.257-273
- 4) 中島國彦(1975) 『『桜の実の熟する時』の構造—その作品の底を流れるもの—』 『国文学研究』 早稲田文学国文学会, pp.34-45

『버찌가 익을 무렵』의 플롯에 주목하면서 작품 속에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음을 논했다. 본고 또한 나가시마의 관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물의 변용과 잃어버린 시간의 추적이라는 글쓰기에 주목하고 있어 차별화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다른 연구로는 시모야마 조코(下山嬢子)의 『시마자키 도손-사람과 문학(島崎藤村一人と文学-)』이 있다. 시모야마는 “이 두 작품이 거의 같은 시기에 세상에 나온 배경으로 보아 ‘신생사건’의 결과 속을 내포하고 있다.”<sup>5)</sup> 고 말한다.

본고는 도손이 소설장르가 지닌 허구장치를 통해 등장인물을 변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물에 촉발되어 무의식의 기억을 끌어내는 프루스트적 글쓰기<sup>6)</sup>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고마코의 변용으로서의 시계코

『버찌가 익을 무렵』의 도입부는 1890년 도손이 메이지 학원 3학년 재학시절에서 시작된다. 계절은 초여름이며 인력거를 타고 우연히 스쳐지나가는 시계코라는 여성으로 부터 촉발되어 주마등처럼 과거가 회상되는 것이 도입부다. 작중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졸업 이후인 1893년 이른 봄까지 이어진다.

작품 속표지에 “그는 무심코 주워 올린 버찌 냄새를 맡아보고, 동화 같은 정취를 맛보았다. 그것을 젊은 날의 행복의 증표라고 상상해 보았다”라는 짧은 서문이 나온다. 애초 창작 의도는 ‘젊은 날의 행복’을 추적해서 밝은 미래를 그리고 다감했던 시절을 애뜻하게 회상하는 작품임을 예감하게 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작품 「3장」은 스테키치가 여름학교(夏期學校)에 참가하여 벽찬 감동에, 고텐야마(御殿山)에 가서 석양을 바라보며 자연에 감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스테키치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광활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다. 「4장」 역시 ‘여름학교’에서 강렬한 자극을 받은 스테키치가 자신의 인생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내용이다. 「5장」에서는 학우인 스게(菅)와 아다치(足立)와 더불어 정신적 세계를 공유하며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작품에 나타난 스테키치 모습은 도손의 모습이며 성장하면서 문학을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5) “『新生』第一卷と同時に春陽堂から刊行されたことが示すように、この二作は<新生事件>の表裏をなすような位置にあり。” 下山嬢子(2004)『島崎藤村一人と文学一』勉誠出版、p.132

6) 본고는 ‘프루스트적 글쓰기’를 무의식 속에 묻혀 있다가 되살아나는 일련의 기억들을 통해, 과거의 경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글쓰기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8장」에서는 학교를 갓 졸업한 스테키치가 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다양한 인간들을 관찰하는 내용이다. 장사에 흥미를 못 느끼는 스테키치의 모습에서 숙명적으로 문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도손의 미래가 암시된다. 스테키치는 마침내 문학을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고 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버찌가 익을 무렵』은 교양소설답게 한 소년이 예술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 그 안에는 도손이 거친 청소년기와 교우관계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작품은 메이지시대 초기의 도쿄 시타마치 거리 모습과 교통수단 등 사회풍속을 고증하듯이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3장」의 ‘기독교 제2회 여름학교’ 정경에 대한 묘사는 귀중한 사료로 알려져 있다. S학사로 등장하는 오니시 하지메(大西祝)를 비롯하여 근대 일본의 기독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총망라된다. 이러한 세밀한 시대풍속과 구체적인 사실묘사와는 달리 여성 인물에서 변용이 보이는데 그것은 시게코라는 인물이다. 그 외의 인물은 전반적으로 사실에 바탕하고 있다.

작품 도입부인 「1장」과 「2장」의 스테키치에 대한 묘사는 뭔가 쫓기는 듯 불안한 모습이다. 작품은 스테키치의 우울이 부각되는데 우울의 근원에 연상의 여인이 설정되어 있다. 도손은 메이지 학원에 적을 둔 채 제일고등학교(第一高等中學校) 입학시험에 응시해서 낙방을 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실의에 빠졌다는 전기적 자료는 있으나 이성과의 교재로 인해 심각하게 고뇌했다는 문헌은 발견되지 않는다. 작품 속 주인공은 입학 후 2년 동안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으나 졸업을 1년쯤 앞 둔 현재 판 사람처럼 변해버려 주위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작품은 그 원인을 염문 때문이라고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적 허구다. 염문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지게 된 스테키치라는 인물 안에는 고마코 때문에 프랑스 파리로 도피해야만 했던 도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1장」과 「2장」에서 집요하게 서술되는 스테키치의 우울은 프랑스에서 『버찌가 익을 무렵』을 집필하고 있는 고독한 도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도손의 심경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공허하게 무너지는 공황상태에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남녀의 사랑을 생명으로 고양시켜 주목받은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도손에게 조카와의 사랑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 파멸이라는 인식이 보인다.

마치 새장에서 뛰쳐나온 작은 새처럼 자기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다. 높은 가지에서라도 바라보듯이 이 넓디넓은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일도 자신이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해서 안 될 것은 없어보였다. (중략) 그는 자신과 시게코 사이에 퍼져있는 좋지 않은 소문을 처음 알았다. 당치도 않은 소문,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기독교 신도답게 행동했다고

7) 오니시 하지메(大西祝, 1864-1900) : 철학자. 평론가. ‘일본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된다. 독일 이상주의 철학의 입장을 고수, 객관적 비판주의 태도를 지녔다. 당시 발흥하던 국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초월한 개인의 독자성을 인정했다.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예전에 그를 행복하게 해 준 것은 악의 구렁텅이로 그를 밀어 떨어뜨렸다.

まるで籠から飛出した小鳥のように好き勝手に振舞うことが出来た。高い枝からでも眺めたようにこの広々とした世界を眺めた時は、何事も自分の為たいと思うことで為て出来ないことは無いように見えた。(中略)彼は自分と繁子との間に立てられている浮名というもの初めて知った。あられもない浮名。何故というに、その時分の彼の考えでは少くとも基督教の信徒らしく振舞ったと信じていたからである。(中略)けれども彼は眼が覚めた。曾て彼を仕合せにしたことはドン底の方へ彼を突落した。  
(第一章, pp.10-11)

메이지학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스테키치는 미션스쿨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학원은 메이지여학교와 동일한 기독교 계열의 학교이다. 이들 기독교 학교는 유교가 억압하는 이성간의 교제가 아니라 양지(陽地)에서 남녀가 만나고 음악회와 문학회를 개최하는 밝은 세계를 선도했다. 이는 참신한 메이지의 풍속도로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쳤음을 알 수 있다. 도손 역시 낭만적 분위기에 도취되었으며 후일 도손이 일본 근대 낭만주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데에는 메이지 학원의 교풍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도손은 「내 인생의 겨울」에서 “그 무렵 메이지학원에는 부호의 자제들이 많았고 모두 좋은 옷을 멋지게 차려 입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도손은 양가의 자제들을 선망했으며 그들처럼 차려입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학우 고쿠라 에이키(小倉銳喜)의 충고가 계기가 되어 도손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황새 흉내를 내는 뱀새처럼 굴었던 것을 상기하고 비로소 새로운 길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sup>8)</sup> 『버찌가 익을 무렵』에서는 양가의 자제를 모방했던 자신을 ‘공작 흉내를 내는 까마귀(孔雀の真似をする鴉)’라고 묘사하며 후회하는 것으로 나온다. 작가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해가는 사춘기 소년이 과도기에 겪을 수 있는 성적 동요를 소년의 미묘한 감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소설에 시게코라는 여성을 등장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년의 감정으로서의 과장된 감이 있으며 오히려 성인 남성의 치명적인 어두운 과거를 느끼게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생사건’으로 인해 1913년 4월에 프랑스에 가면서 기존의 『버찌』는 중단되었다. 다음해인 1914년 5월부터 게재된 작품의 제목은 『버찌』에서 『버찌가 익을 무렵』으로 수정된다. 프랑스에서는 『버찌가 익을 무렵』 「5장」까지 집필하고, 일본에 귀국한 이후

8) 井上達三編(1972)「吾が生涯の冬」『藤村全集』6、筑摩書房、pp.498-500 참조

「6장」부터 이어쓰기 시작하여 햇수로 7년여에 걸쳐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귀국 후에도 고마코와의 관계는 이어졌다.<sup>9)</sup> 이러한 복잡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게코라는 인물 안에는 도손의 실생활의 연장선인 고마코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스테키치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형태로 시게코가 나오는 「1장」의 장면이다.

그녀를 태운 인력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다는 것은 (중략)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눈앞의 신록이 작년의 오래된 썩은 낙엽을 덮어 감추듯이·그것들의 여러 가지 기억이 참을 수 없는 그의 가슴에 떠올랐다. 시게코와 관련된 일과 함께, 또 한명의 부인의 일도 떠올랐다.

彼女を載せた俵が無言のまま背後を通過ぎて行ったことは、(中略)葬り去りたい過去の記憶—出来る事なら、眼前の新緑が去年の古い朽葉を葬り隠す様に—それらのさまざまな記憶が堪らなくかれの胸に浮んだ。繁子のことにつれて、もう一人の婦人のことも連がって浮んで来た。

(第一章, pp.7-8)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연상의 여성이 인력거를 타고 스쳐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스테키치는 자신을 숨기려고 애쓴다.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라는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고마코가 어른거린다. 시게코를 기억에서 지우려는 스테키치의 강박적 행동의 저변에는 고마코와의 불륜사건이 잠재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청년 스테키치가 아닌 어두운 과거를 지닌 중년 남자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덮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의 실체는 고마코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도손이 창출한 인물 시게코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토로하기 위한 인물설정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에서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징으로서 나오는 시게코라는 인물은 청소년인 스테키치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신생』의 스테키치의 상대역인 세쓰코(節子)가 연상된다. 시게코 안에는 고마코가 투영되어 있으며 고마코는 도손의 어두운 과거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작품에서 현실의 고마코는 시게코로 변용되고 있으며 『버찌가 익을 무렵』이 표방한 청소년물이라는 특성 속에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음을 본다.

고마코의 임신은 도손으로 하여금 멀리 프랑스로 도피하게 했다.<sup>10)</sup> 파리에서 새로운 생활

9) 1916년 5월 도손은 프랑스에서 귀국하자 고마코는 도손이 살고 있는 집에 가사를 도와주기 위해 다시 드나들었다. (伊東一夫(1972)『島崎藤村事典』明治書院, p.189)

10) 1913년 4월 13일 어네스트 시몬호에 몸을 싣고 고베(神戸)항을 출발한다. 상해·싱가포르·콜롬보를 거쳐 5월 20일 마르세유항에 도착, 5월 23일 아침 파리에 도착한다. 아시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파리통신원 신분으로 파리에 도착한 도손은 「프랑스 소식(仏蘭だより)」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단속적으로 고국에

에 적응하느라 분주해지면서 공포감에서 다소 해방되었으나 한번 발생한 과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버찌가 익을 무렵』을 새로 쓰면서 도손은 스테키치에게 자신의 무의식의 공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는 그런 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다나베 아저씨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중략) 피하려고 해도 결국 피할 수가 없었던 그 순간의 마음의 당황과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애라고 하는 것은...

「貴様はそんなところで何を考えてる」と田辺の小父さんに問われることがあっても、彼は自分の考えることの何であるやを明かに他に答え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中略)避けよう避けようとして遂に避けられなかったあの瞬間の心の狼狽と、そして名状しがたい悲哀とは...

(第三章、p.34)

위에서 보듯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테키치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느냐”고 채근하지만 스스로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작품은 애매하게 회피한다. 사춘기 소년인 스테키치의 능력으로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었겠지만 40대의 도손은 충분히 스테키치의 심정을 해부할 수 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의 당혹감”의 실체는 고마코의 임신사실의 은유로 볼 수 있다. 도손은 『신생』「13장」에서도 “피하려고 피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처럼 기시모토는 그 말을 듣고 영겁결에 몸을 떨었다.”라고 쓴다. 조카의 임신사실을 듣게 된 순간의 당황함을 나타내고 있다.<sup>11)</sup> 시게코라는 인물 안에는 청년 스테키치가 아닌 중년의 도손이 감당해야 할 고마코가 음화(陰畫)처럼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신생』의 주인공 스테키치가 자꾸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은 다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웬지 스테키치의 가슴에는 어머니의 여행이 떠올랐다. 이어서 자신의 책상위에 신약성서를 꺼내어, 이마를 그 책 위에 파묻고, “주여, 이 어린 종을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何となく捨吉の胸にはお母さんの旅が浮んだ。やがて自分の机の上に新約全書を取り出し、額をその本に押宛てて、「主よ。この小さき僕を導き給え」と祈って見た。(第七章、pp.99-100)

어머니와 작별한 후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스테키치는 어머니의 여행을 떠올리며

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11) 井上達三編(1972)『新生』『藤村全集』7、筑摩書房、p.40

기도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어머니의 여행은 도손의 프랑스 여행과 중첩된다. 이 기도는 어린 스테키치의 기도라기보다는 고마코 사건으로 프랑스에 오게 된 중년 도손의 애절한 욕성으로 들린다. 여기서도 『신생』의 스테키치가 또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신생』 「78장」의 “운명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 생각일까? 하며 하숙집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sup>12)</sup>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멀리 프랑스까지 왔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한 번 생긴 얼룩은 지울 수가 없다. 집필 당시의 도손의 고뇌와 위기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작품 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도손이 작품 속에 청소년기의 고뇌를 그려내고 싶었다면 일고 낙방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과거의 소재가 있을 수 있다. 작품에서 친구인 아다치로 나오는 바바 고초(馬場狐蝶)는 도손의 변모를 일고 낙방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도손은 그러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연상의 여인 시게코를 어두운 과거의 대체물로 내세우고 있다. 애초 집필 의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었으나 작가는 자신이 처한 위기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작품은 시게코라는 인물 설정을 통해 작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읽기가 가능해진다.

### 3. ‘공포’와 ‘우울’의 실체

『버찌가 익을 무렵』의 세계는 ‘우울’과 ‘공포’ 라는 단어가 주조음(主調音)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키워드를 ‘우울’과 ‘공포’라고 할 수도 있다. 임태균은 앞의 논문에서 “‘우울’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있어서 신체의 성적인 변화를 대변하는 심리현상<sup>13)</sup>”이라고 말한다. 「7장」의 천진난만한 소년에서 성을 자각하는 청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모습과 「4장」의 ‘청년다운 어두운 세계(青年らしい暗い世界)’를 묘사하며 이를 ‘우울’로 드러내고 있다. 사춘기의 자연스런 신체적 성장에 대한 자각을 ‘우울’이라는 정서에 결부시키고 있다.

이 어른들로부터 받은 사랑은,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만족시켰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마음조차 어딘가에 잃어버렸다.

12) 井上達三編(1972)『藤村全集』7, p.155

13) 임태균(2006)『『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론 -‘동정’의 고뇌를 중심으로-』『일본학보』67, p.245



この目上の人の愛は、すべての人から好く思われ、すべての人から愛されたいと思った彼の心を満足させたのである。それらの日課を励む心すら何処へか失われて了った。(第一章、p.18)

위의 인용문에서 스테키치의 무력감을 엿볼 수 있다. 메이지학원에 입학한 스테키치는 수업은 물론 클럽활동까지 의욕이 넘치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온다. 메이지학원 재학 중에 갑자기 변한 생활태도는 실제 있었던 일고낙방과 연관이 있음은 주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손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낙방사건과 현실의 고마코 사건이 합쳐져 시계코로 변용되어 우울과 공포로 형상화 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울—모든 것의 색채를 바꿔 버리는 듯한 우울이 일찍 소년의 몸에 다가 온 것은 스테키치의 잠옷이 더러워진 때부터였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발달했다. 마침 그가 뽑고 있는 풀의 싹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의 속에 싹튼 것은 무서운 기세로 넘쳐났다. 머리는 길어졌다. 뺨은 뜨거워졌다. (중략)누르기 힘든 젊디젊은 청춘의 파도는 온몸을 내달렸다.

憂鬱—一切のものの色彩を変えて見せるような憂鬱が早くも少年の身にやってくるのは、捨吉の寝巻が汚れる頃からであった。何もかも一時に発達した。丁度彼が筆っている草の芽の地面を割って出て来るように、彼の内部に萌したものは恐ろしい勢で溢れて来た。髪は濃くなった。頬は熱して来た。(中略)制えがたく若々しい青春の潮は身体中を馳けめぐった。

(第三章、p.37)

시춘기에 접어든 스테키치가 성적으로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테키치는 자신의 내부에서 솟구치는 생명의 본능을 느끼고 주체하지 못한다. 성적 욕구의 표출은 유교와 기독교 모두가 억압하고 있으며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테키치는 육체의 성장에 수반되는 자연으로서의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번민하며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육체적 성장에 따른 성에 대한 스테키치의 자각은 ‘우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공포’까지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텍스트는 전한다.

시계코와 다마코처럼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 부인들이 있어 청춘남녀의 교제를 맺는 일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생각해 보았다. (중략) 어느 샌가 그는 어른들이 모르는 길을 제멋대로 걷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심경에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꼈다.

繁子や玉子のような基督教主義の学校を出た婦人があって青年男女の交際を結んだ時があったなぞとはどうして知ろうと想って見た。(中略)何時の間にか彼は目上の人達の知らない道を自分勝手に歩き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気が着いた。彼はその心地から言いあらわし難い恐怖を感じた。

(第二章、p.20)

스테키치가 연상의 여인들인 시게코와 다마코를 알게 되고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했던 사실을 어른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어른들이 모르는 세계에 몰래 들어와 있는 자신에게서 ‘공포’와 ‘우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울’은 성에 대한 자각이며 ‘공포’의 실체는 어른들이 금기시하는 이성교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른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으며, 알린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없는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이성교제가 아닌 것이다. 작품은 소년과 연상의 여인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관계로 설정했으나 진실은 보다 더 충격적인 숙부와 질녀 사이의 불륜이다. 위의 글의 행간에는 숙질간의 선을 넘은 관계가 암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포’와 ‘우울’의 배후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작품 속의 ‘우울’과 ‘공포’의 실체는 고마코와의 관계가 초래한 강도 높은 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필 「내 인생의 겨울」에서 도손이 말하는 ‘공포’는 청소년기의 자신이 나가야 하는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는 불안이다.<sup>14)</sup>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포’의 원인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청소년이 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성장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공포’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포’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에는 그 실체가 미약하다. 나가시마는 앞의 논문에서 “문학작품에서의 표현이란, 자기 자신이 지닌 의미를 밝히는 기능을 말에 부여하는 것으로서 말을 자립시키는 것이 아닐까.”<sup>15)</sup>라고 말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이처럼 『버찌가 익을 무렵』은 도손이 직면한 고통스런 현실과 처절한 자기 응시가 말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속의 ‘공포’와 ‘우울’의 실체는 현실에서의 고마코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도손의 위기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 속 ‘우울’은 성적인 자각이라는 심리현상을 넘은 삼촌과 조카라는 근친간의 연애, 즉 금기의 연애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반부로 진행될수록 ‘공포’의 실체는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은 어머니의 상경을 계기로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드디어 다시 혼자서 고향의 계곡을 향해 돌아가는 것도 떠올랐다. 어느 것 하나 스테키치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중략) “일단 아저씨의 친척을 봐라. 요즘 세상에는 실업이 아니면 안 되지” 이것은 아저씨가 여러 예를 들어가며 스테키치에게 보여주려는 출세의 길이였다. 이상하게도 아편을 싫어하는 다나베 아저씨의 집 친척 중에는,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들이 있고,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다. (중략)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보니, 그는 어느 샌가 제멋대로의 길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던 그 공포를 더욱 깊게 했다.

14) 若し、初めから、自分の通る道路が解って居れば、迷ふ人もない筈であるが、どう云う風に進んでいか解らぬので、そこで後悔したり、冷汗が流れたり、時としては恐怖の為に眼が眩んだりする。

井上達三編(1972)『吾が生涯の冬』『藤村全集』6、筑摩書房、p.497

15) 文学作品における表現とは、自分自身の持つ意味を自分で解き明すような機能をおことばに付与することによってことばを自立させ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桜の実の熟する時』の構造—その作品の底を流れるもの—』『国文学研究』早稲田文学国文学会、p.42

お母さんが、やがて復た独りで郷里の谷間の方へ帰って行くことを思われた。何一つ捨吉はお母さんを悦ばせるようなことも言い得なかった。(中略)「試みに小父さんの親戚を見よ。今の中の中は実業でなければ駄目だぞ」これは小父さんが種々な事で捨吉に教えて見せる出世の道であった。不思議にもアーメン嫌いな小父さんの家の親戚には、基督教に皈依した人達があつて、しかもそれらの人達は皆貧しいかった。(中略)何事も知らないでいるようなお母さんに逢つて見て、彼は何時の間にか自分勝手な道を辿り始めたその恐怖を一層深くした。

(第七章, pp.94-95)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 속에는 다나베 아저씨가 친척들을 산촌에서 데리고 나와 도쿄에 정착하여 성공하기까지의 일화가 들어있다. 아저씨가 평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테키치의 뇌리를 스쳐간다. 어른들의 기대와 달리 어른들이 모르는 길을 제멋대로 걷고 있는 자신에 대해 스테키치는 전율한다. 작품은 미지의 길을 지향하기 때문에 스테키치가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고마코와의 관계를 더해야 고뇌의 깊이를 실감할 수 있다. 어머니의 상경은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려주는데 이는 어른들이 속한 세계란 의식주와 관련한 현실과의 고투이며 치열한 생존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6장」과 「7장」의 어머니와의 오랜만의 해후는 도손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 내포되어 있다. 어머니 또한 도손과 비슷한 어두운 과거를 지닌 인물이어서 각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된다. 천선미는 앞의 논문에서 「프랑스 도피 후에 집필된 『버찌가 익을 무렵』에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6)</sup>라고 했듯이 도손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은 초기 작품에는 어머니가 거의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프랑스에 온 이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도손의 프랑스행은 고향과 가족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국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부여한 것이다. 도손이 저주했던 유전적 숙명이 자신에게도 이어졌음을 확인 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동변상련을 느끼는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어머니의 여행은 도손의 프랑스 여행과 의미심장하게 중첩된다. 고마코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택한 파리생활이기 때문에 ‘우울’과 ‘공포’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아야한다. 사회의 통념이 허용하지 않는 제도권에서 일탈한 사랑은 공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도손을 이해할 수 없는 주위 사람들이란 인간을 둘러싼 사회를 말한다. 스테키치의 ‘공포’는 사람들과의 관계 즉,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소외돼야만 하는 현실인식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16) 천선미(2017)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론 -모성과 어머니에 대한인식의 성장-」 『일본문화연구』62권, p.264

도손은 일찍 문학계에 발을 들여놓은 문학인으로서 프랑스행을 결행할 당시 문인으로서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이다. 『신생』 「98장」에서 “자책하면 할수록 눈물겹다는 느낌마저 들었다.”로 서술되고 있다. 그동안 문학이라는 세계에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자각이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nihil리즘에 도손이 빠져있음을 본다. 이것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방향상실감과 함께 ‘공포’와 ‘우울’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 4. 프루스트적 글쓰기

도손이 프랑스에 체재한 시기(1913-1916)와 마르셀 프루스트가 활동한 시기는 겹친다. 프루스트는 1909년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기 시작해서 1912년에 초고를 완성한다. 우여곡절 끝에 1913년 11월 첫 권인 「스완네 집 쪽으로」가 발행되어 약간의 성공을 거둔다. 이듬해인 1914년 1차세계대전 발발함으로써 후속 작품의 발표가 미루어지게 된다. 전쟁의 발발로 프루스트는 소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1916년에 발표한 「꽃핀 소녀의 그늘에서」라는 작품은 1919년에 콩쿠르 상을 수상하게 되고 프루스트는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세기 현대문학이 성취한 ‘의식의 흐름’의 방법이 시도된 걸작이며 프루스트는 이후 많은 문인에게 영감을 준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도손이 프랑스에 체류한 시기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분히 글쓰기의 영향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작가의 나이를 보면 프루스트는 1871년생이고 도손은 1872년생이다. 프루스트는 도손보다 한 살 위로서 거의 동년배라고 말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는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관여하던 출판사(누벨 르뷔 프랑세즈: N·R·F)에서 출판을 거부한 작품인데, 다른 진보적 출판업자가 출판해 줌으로써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화제가 된 작품이다. 나중에 앙드레 지드는 지난날의 거절을 후회하고 1914년 프루스트에게 소설 인수를 제의했으나 이번에는 프루스트가 거절하는 등 문단을 둘러싼 파란이 있었다.

이런 와중인 1913년 5월에 도손은 프랑스 파리에 도착, 다음 해인 1914년에 1차세계대전의 전화(戰禍)를 파리에서 겪고 남프랑스 리모주로 피신한다. 이러한 전후관계로 비추어 볼 때 두 작가는 한 때 같은 시공간에 있었다는 우연성이 발견된다.

도손은 일본에서 이미 『버찌』를 2회 연재하다가 중단하고 프랑스에 와서는 작품을 전면 새로 쓴다. 제목도 『버찌가 익을 무렵』이라는 다소 긴 이름으로 수정된다. 프루스트의 작품의 제목도 「스완네 집 쪽으로」 「꽃핀 소녀의 그늘에서」에서 보듯이 서술체이며 상당히 길다. 게다가 두 작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둘 다 러스킨에 심취하여 러스킨 저서의 연구에 몰두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석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은 러스킨에서 배웠으며 프루스트와 도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다. 따라서 두 작가는 서로 친화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프랑스에서의 체류경험은 도손의 작가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프랑스인의 애국심을 보고 고국 일본을 생각하게 되고 시인 샤를 페기<sup>18)</sup>가 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접하고 충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파리의 음악회에서 드뷔시의 음악 ‘어린이의 정경’을 접하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함께 동화창작에 대한 의지가 싹튼다. 『버찌가 익을 무렵』 속표지의 짧은 글의 동화적 발상은 당시 도손의 심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는 무심코 주워 올린 버찌의 냄새를 맡아보고, 동화 같은 정취를 맛보았다. 그것을 짧은 날의 행복의 증표라고 상상해 보았다.

思わず彼は拾い上げた桜の実を嗅いでみて、お伽話の情調を味わった。それを若い日の幸福のしるしという風に想像して見た。(扉)

위의 속표지의 문장은 이 작품이 ‘짧은 날의 행복’을 추적하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감미로운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프루스트는 “진정한 낙원은 상실한 낙원이다”<sup>19)</sup> 라고 말했다. 도손이 무심코 주워든 버찌에서 촉발하여 지난날의 행복,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반추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작가가 동시대를 살았으며 도손이 프랑스로 체류 당시에 프루스트가 왕성한 작가활동을 한 것을 상기해 볼 때 도손은 프루스트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목이 명사형 『버찌』에서 서술형인 『버찌가 익을 무렵』으로 수정된

17) 도손은 고모로에 갈 때 러스킨의 저서 『근대화자들』5권을 들고 간다. (『藤村詩集』‘雲’, p.444 참조) 프루스트의 초기 저술은 러스킨에 관한 것이며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을 번역출판, 십수년간 러스킨을 연구했다. 러스킨의 정교한 관찰, 이를 묘사하는 해학과 재기 넘치는 문체에 매료된다. 그리고 러스킨의 족적을 따라 아이앵 루앙 베네치아 피렌체 파도바 등을 여행했다. (이형식 『프루스트』, p.20 참조)

18) Charles Peguy(1873-1914) : 프랑스의 시인 겸 사상가. 희곡 《잔 다르크》에서는 잔 다르크를 민중과 사회주의의 영웅으로 묘사하였다. 1914년 마리안 전투에서 죽기까지 복수세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서 카톨릭, 반 카톨릭 다시 종교로의 귀의라는 정치적 행보를 한다.  
김길훈(2007) 「샤를 페기의 이교적 영혼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40집, 프랑스 학회, pp.22-23 참조

19) 이형식 외(1993) 『프루스트·토마스만·조이스』 서울대학교출판부, p.28

것도 프루스트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버찌가 익을 무렵』은 도손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설이다. 물론 두 작가가 겪은 성장환경과 육친에 대한 회상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sup>20)</sup>를 지녔지만 무의식에 묻혀있던 기억을 끌어내는 글쓰기 방법은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소년 시절부터 자주 보아 왔던 어머니의 왼쪽 눈 위에 커다란 사마귀. 그것을 보고 있자니, 어느새 스테키치는 어머니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은 먼 고향의 숲 쪽으로 갔다.

少年の時からよく見覚えのある、お母さんの左の眼の上の大きな黒子。それを見ていると、どうかすると捨吉はお母さんの話すことを聞いていながら、心は遠く故郷の山林の方へ行った。

(第六章. p.87)

오랜만의 어머니와의 해후는 스테키치를 기억에서 아스라이 떨어진 유년기로 이끈다. 어머니의 사마귀가 계기가 되어 유년기를 보냈던 고향 신슈(信州) 산촌의 정경이 현재의 의식 위로 불현듯 되살아난다. 나무타기를 하고 놀던 때의 일, 새의 꼬리를 주웠던 일 등, 동화의 세계로 이어지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다. 동화의 세계로 추억하고 싶은 고향이지만 어머니가 전하는 고향의 현실은 꿈을 부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현실의 세속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며 동화적 세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라는 상실감이 전해진다. 또 어머니의 방문은 스테키치가 다나베 아저씨의 집에서 살게 된 경위와 스테키치에게 거는 집안의 기대, 고향의 자연과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회상된다. 이것은 프루스트의 유명한 마들렌 과거가 상기해내는 프루스트의 어린 시절 묘사와 일맥상통한 서술 방법이다. 도손과 프루스트 두 작가 모두 우리가 일상에 찌들어 있고 있었던 과거를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 회상해 내는 서술방법을 취한다. 기억은 무의식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한다. 이러한 일련의 기억들이 스테키치의 유년기의 시간을 되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다분히 프루스트적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다. 프루스트는 드레뤼스 사건<sup>21)</sup>과

20) 프루스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어머니와 외조모는 서양의 고전작품을 애독한 교양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프루스트의 작품에는 이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묘사된다. 그에 비해 도손의 작품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그다지 없으며 오히려 냉담한 편이다.

21) 드레뤼스 사건(Dreyfus Affair) : 1894년에 유대인 장교 드레뤼스가 반유대주의, 반공화주의, 군대 소수의 저널리즘, 왕당파 사수의 몇몇 무리들에 의하여 조작된 간첩죄로 유죄선고를 받아, 이에 맞서 소수의 법률가, 지식인, 정치가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르셀 프루스트도 1897년부터 1899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드레뤼스 구명운동에 참여했다.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작품 속에 사실성과 부르주아 계층을 바라보는 풍자적 요소를 늘려서 담게 된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에도 인물묘사에 있어서 아이러니를 곁들인 풍자적 요소가 많이 나온다. 은인 다나베 아저씨를 비롯하여 다나베 일가를 둘러싼 인물들에 대한 묘사에는 다분히 냉소적 시선과 풍자가 들어있다. 「1장」의 기적을 말하는 교회장로에 대한 묘사는 당시 일본 기독교 교회의 위선을 꼬집는 대목이며, 「4장」의 여러 사업에 실패하여 기독교를 안식처로 삼은 다마키 부부의 기독교 신앙도 골계에 찬 풍자적 묘사다. 작품에 드러난 도손의 시선은 다분히 문명비평적 시선이며 다나베 같은 부류의 신흥 재력가를 속물로 그려냄으로써 풍자를 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버찌가 익을 무렵』의 속표지의 짧은 글은 상실한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다.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날 교문 앞에서 버찌 열매를 주워든 스테키치의 내면풍경은 애상감이 묻어난다. 그것은 유년기가 상기시키는 행복하고 감미로운 시간이며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회상이다. 유년기에 어울리는 동화적 세계로 독자를 이끌어 갈 것처럼 보였던 작품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감미로움 보다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속물들의 세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들이 속한 밝은 세계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암울하고 고립된 세계를 선택한 도손의 자기옹시가 보인다. 문학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괴리를 속명으로 수용하는 것이며 이에 비례해 문학가로서의 성숙도 예견된다. 작품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청년 스테키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은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런 상실감은 문학의 자양분이 되고 고차적인 예술로 승화되어갈 것이 예견되는데, 이 또한 프루스트와 닮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버찌가 익을 무렵』의 작품세계를 사실의 변용과 프루스트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 작품이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소설이라는 점을 수용하면서도 작품의 행간에서 발견되는 집필당시 작가가 처한 고립무원의 고독감과 절망적 의식에 주목했다. 조카와의 불륜에 의한 위기에 봉착하여 프랑스로 도피성 외유를 하게 된 작가의 심정이 행간에 드러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조감할 때 인물 설정과 배경 묘사에 있어서 사실적이며 고층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코라는 인물은 허구이며 그 안에 고마코가 투영되어 있음을 조명했다.

또 이 작품은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어두운 기조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우울’ 과 ‘공포’ 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이는 집필당시의 도손의 심경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도손의 내면 풍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암담함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래서 가공의 인물인 시계코의 설정이 필요했으며 시계코 안에 고마코를 변용시켜 놓았다고 보았다.

스테키치는 비밀스런 세계에 갇혀서 혼자서 전전공공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년이 겪는 감정으로는 과장되었으며, 이는 숙부와 질녀간의 불륜으로 인해 이국만리 타향에 온 도손의 심정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또 도손이 프랑스에 체류한 시기는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초고를 완성한 직후로 제1편 「스완네 집 쪽으로」가 성공을 거둔 시기와 겹치는데 주목했다. 프루스트는 무의식에 묻혀있는 기억을 ‘의식의 흐름’의 방법으로 쓴 작가이다. 『버찌가 익을 무렵』도 이와 유사한 글쓰기가 보인다. 작품에서 어머니의 사마귀로부터 촉발되어 유년시절 산촌에서 보냈던 동화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 등이 그 실례이다. 이는 마치 프루스트가 유년기를 보냈던 콩브레 마을을 낙원의 기억으로 무의식에 각인한 것과 흡사하다. 도손 역시 사물에 촉발되어 회상되는 기억들을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프루스트적 글쓰기라고 고찰했다.

### 【참고문헌】

- 김길훈(2007) 「샤를 페기의 이교적 영혼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40집, 프랑스 학회, pp.22-23
- 이형식 외(1993) 『프루스트·토마스만·조이스』 서울대학교출판부, p.28
- 임태균(2003) 「『버찌가 익을 무렵』에 나타난 성장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19, pp.187-203
- \_\_\_\_\_(2006)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實の熟する時)론 -‘동정’의 고뇌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67, pp.241-252
- 천선미(2017)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桜の實の熟する時)론 -‘모성과 어머니’에 대한인식의 성장-」 『일본문화연구』62, p.264
- 伊東一夫(1972) 『島崎藤村事典』明治書院, p.189
- 井上達三編(1972) 『藤村全集』6, 筑摩書房, pp.497-500
- \_\_\_\_\_(1972) 『藤村全集』7, 筑摩書房, pp.40-187
- 下山嬢子(2004) 『島崎藤村一人と文学一』勉誠出版, p.132
- \_\_\_\_\_(2008) 『近代の作家 島崎藤村』明治書院, pp.281-305
- 島崎藤村(1991) 『千曲川のスケッチ』新潮社, pp.167-173
- \_\_\_\_\_(1971) 『藤村詩集・日本文學大系』15, 角川書店, p.444
- 瀨沼茂樹(1984) 「島崎藤村—その生涯と作品—」 『近代作家研究叢書』26, 日本図書センタ
- 中島國彦(1975) 「『桜の實の熟する時』の構造—その作品の底を流れるもの—」 『国文学研究』早稲田文学国文学会, p.42



吉田精一著作集6(1988)『島崎藤村』桜楓社、p.132

---

논문투고일 : 2018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

---

 < 要 旨 >
 

---

##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 고찰

- 사실의 변용과 프루스트적 글쓰기 -

강정심·김난희

이 논문은 시마자키 도손의 『버찌가 익을 무렵』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13년 프랑스 파리에서 쓰기 시작하여 1915년 귀국 이후에도 집필이 계속된 특이한 작품이다. 도손은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버찌』라는 작품을 썼는데 2회까지 쓰다가 중단했다. 그리고 프랑스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쓴다. 본고는 『버찌가 익을 무렵』에는 프랑스에서의 도손의 암담한 심경이 ‘공포’와 ‘우울’로 나타나 있음에 주목했다.

이 작품은 교양소설로서 도손의 청소년기의 삶을 거의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초반부에 나오는 시게코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40대의 나이에 청소년기를 회상하여 서술하는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위기에 직면한 증견작가의 욕성이 들어 있다.

시게코라는 여성 인물 안에는 고마코가 투영되어 있으며 작가는 이를 사춘기 소년인 겪는 성의 문제로 교묘히 치환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사실의 변용’으로 보았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의식의 흐름’의 방법으로 재현하고 있어서 ‘프루스트적 글쓰기’를 활용했다고 고찰했다.

## A Study on 『When the Cherries Ripe』 by Tōson Shimazaki

- Transformation of the fact and writing of Proust -

*Kang, Jung-Sim · Kim, Nan-Hee*

This study investigated 『When the Cherries Ripe』 by Toson Shimazaki. This writing is an extraordinary work which started in Paris in 1913 and continued writing when the writer returned back home in 1915. Toson wrote 『Cherry』 when he was commissioned to write a novel for adolescents but stopped writing after the second series. Then, he wrote a completely new story when he returned to France. This study paid attention on the fact that a deep sense of gloom of Toson is depicted in ‘fear’ and ‘depression’ in 『When the Cherries Ripe』.

This bildungsroman is reproducing the adolescent period of Toson almost realistically, and Shigeko in the early part of the story is a fictitious character. This work uses a writing pattern of a writer at the age of 40 reminiscing about his adolescence but contains the voice of an established writer who is confronted with crisis.

Shigeko is reflected in a female character named Shigeko, and the writer is skillfully substituting it as a sex problem that an adolescent boy goes through. This study considered it as a ‘transformation of the fact.’ Also,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writing has used ‘writing of Proust’ because it reenacted memory of the past in a way of ‘stream of consciousness.’